

“옛 적십자병원, 역사교육관광 공간으로”

●5·18기념재단-광주전남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본관동 주요 구조 부재 안전성 확보 확인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통해 상징성 계승

안전성이 우려됐던 옛 광주적십자병원 본관동의 정밀안전진단결과와 주요 구조 부재에서 상시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역사교훈관광 거점공간의 성격을 가진 다목적 여행자센터 및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전시·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오전 광주 동구 5·18기록관에서 오월길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분석 평가와 함께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공간 구상을 제시했다.

동구 불로동에 위치한 5·18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과 함께 광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었던 시민이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특히 집단 발표가 있었던 5월21일에는 학생과 유학생들 등 자식들이 몰려와 헌혈을 하며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장소다.

그러나 타 사적지와 달리 적십자병원의 관리 상태는 좋지 못하다.

1996년 대한적십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서남학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휴업, 공개매각한 뒤 일체의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광주시가 사적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오월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매입을, 지난 8월 5·18기념재단은 광주전남연구원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재단이 제시한 대중친화적 이면서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문화적 체험 공간 등의 취지를 바탕으로 서울 하이크 그라운드(옛 관광사), 스웨덴 뎡 뎡 호텔(옛 감옥) 등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또 건축법 적용사항이나 안전등급, 검토

의견서를 확인해 기존 원형 보존을 토대로 보강·일부 철거·개축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본관동의 구조안전성 등급이 D로 나왔지만, 일부 조적조(내력벽)와 슬래브 및 보에서 내력벽이 초과된 것과 달리 대부분 주요 구조 부재에선 상시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이날 역사적 공간의 원형보존, 전시·체험 공간과 게스트하우스 조성, 여행객과 지역민의 만남의 장 등을 리모델링 방향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본관동 1층에 여행자 센터와 전시 공간을, 2층에 역사문화 창작소를, 3층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5·18기념재단은 옛 광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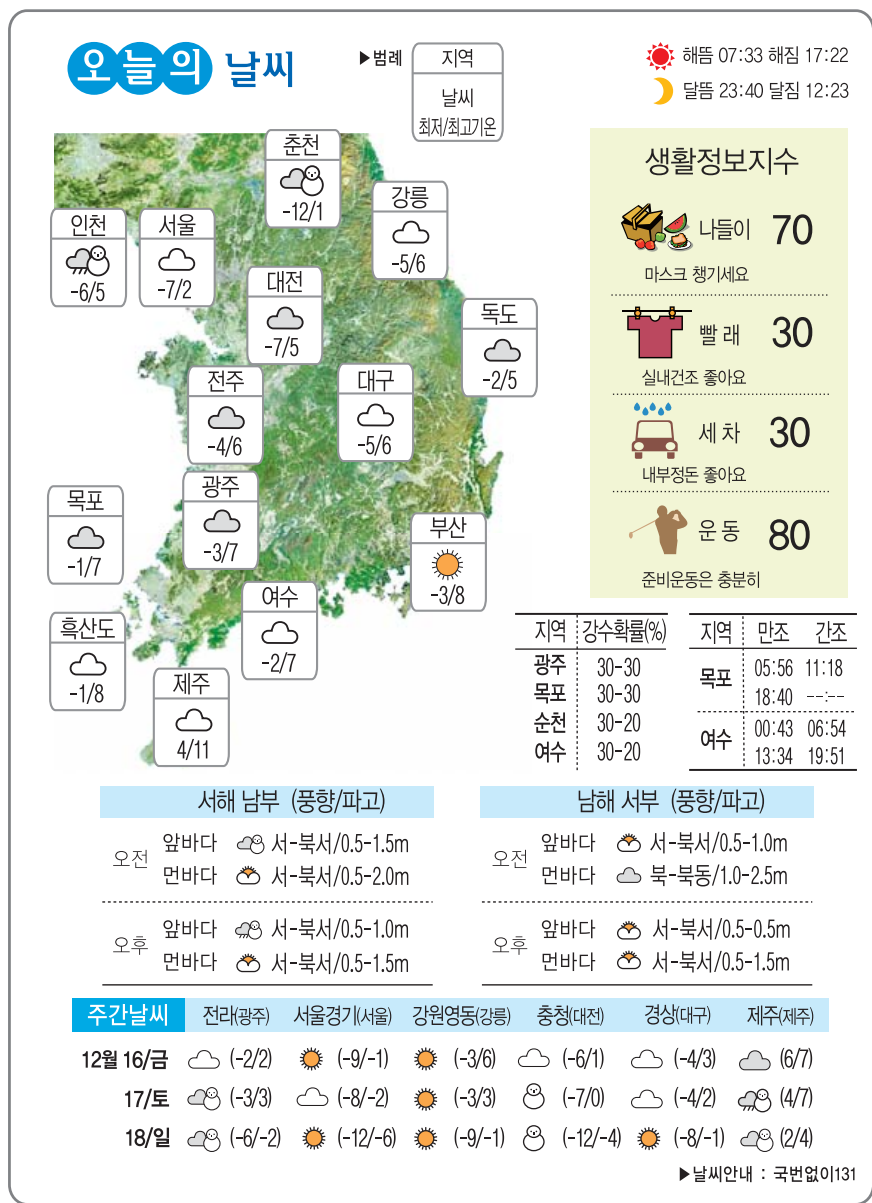
십자병원이 역사교훈관광 ‘오월길’의 거점으로 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민과 5·18정신을 기념하고 공유하면서 시민의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십자병원의 상징성을 이해하면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문 책임연구원은 “오월길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시설 규모가 크지 않고 기능도 복잡하지 않아 관련 사업을 위한 별도 조직, 재단을 꾸리는 것보다 이미 설립된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영기자



5·18기념재단이 14일 오전 광주 동구 5·18기록관에서 오월길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피를 나눈 옛 적십자병원을 역사교육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5·18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광주매일신문 DB



전남 유초중고 학교·학생 수 감소

도교육청 ‘2022교육통계연보’ 발간…교원 수는 증가

전남지역 학생 수와 학교 수는 감소하고, 교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전남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전남 학교 수는 1천353개로 전년(1천364개)보다 11개교(0.8%) 감소했다.

전체 학교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공립)특수학교는 9개교로 전년(8개교)보다 1개 증가했다.

도내 학생 수는 20만333명으로 전년(20만4천291명)보다 3천958명(1.9%) 감소했다. 반면 교원 수는 2만2천288명

으로 전년(2만2천97명)보다 191명(0.9%) 증가했다.

전남교육 통계연보는 학교, 학급, 학생, 교직원, 시설, 재정 등 주요 통계 현황을 담은 자료다.

이번 연보에 수록된 주요 통계는 2022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전남교육통계연보는 전남도교육청 누리집(www.jne.go.kr-정보공개-전남교육통계-연보별교육통계 항목)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임재만기자

광산구,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2위

광주 광산구는 14일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결과 자치구 종합경쟁력 전국 2위, 경영자원 부문 1위, 경영활동 부문 2위를 달성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우수 지자체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의 도시경쟁력을 검증하는 올해 평가에서 광산구는 종합경쟁력 614.1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경영자원 부문에서 195점을 기록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경영활동 부문은 169.3점(자치구 평균 127.9)으로 전국 2위, 경영성과 부문은 249.8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 전국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육근기자

광주교육예산 3조 시대 열렸다

시교육청 내년 본예산 3조575억 시의회 본회의 통과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4천655억원(18.0%) 증가한 3조57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확정된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5천30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천686억원, 기타이전수입 186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39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육회복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6천459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빛고를 다 같이 교과보충 프로

그램’ 운영, 무상급식 식품비 초·중·고 평균 15.3% 인상, 식재료비 지원단가 600원으로 20% 인상,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 인상 및 졸업앨범비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광주형 인공지능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1천63억원을 반영했다.

중학생 노트북과 고교생 태블릿 보급, 빛고를 온라인학교 신설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시설환경, 환경위생 관리 등에 3천153억원을 배정했다.

맘 편한 화장실 조성 127억원(41개교), 내진보강 83억원(공사 14교, 성능평가 33교), 석면교체 217억원(34개교), 스프링클러설치 22억원(기숙사 8교, 특수학교 1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들어갔다.

이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각각 1천300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억원 등 총 2천602억원을 기금에 편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실력 향상을 통한 광주형 미래교육 구축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서구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 1위

광주 서구가 ‘2022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광주시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인증제 진단지표 등 2개 부문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광주시는 중앙부처규제 발굴·개선 실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실적, 규

제혁신 제도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서구는 지난 7월 소관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 조사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치법규 21건의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체 정비했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센터를 통해 발굴한 과제가 중앙부처에 반영됐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안재영기자

매일 매일 활기찬 여기는 송정매일시장입니다!

송정매일시장은...
선암 나루 근처의 선암장을 모태로 하는 송정장은 1920년대까지 광주전체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약 5천 여 명의 주민들이 오가며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송정5일장이 열리는 장터의 중심에 자리하며 상설시장의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랑, 담양, 함평, 나주, 화순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송정매일시장은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인근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서남해안에서 온 싱싱한 해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농산물(미곡, 채소, 고추), 축산물(오리, 닭), 수산물(생선, 건어물), 공산품(철물, 그릇, 식료품, 의류, 신발), 음식점(국밥)등이 있다.

이용시간	07:00 ~ 19:00
휴일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단, 5일장날 3/8/13/18/23/28일은 개장)
주차시설	212면 유료(15분당 200원, 시장 이용시 50% 할인)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 산 구 문의 : 062)650-2099